

창 3:1-6 종일 직장에서 업무와 인간관계에 지친 남자들은,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쉬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눈치 볼 일도 치받칠 일도 없는 자유는, 가정에서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 아내와 자녀들 곁에서도 쉴 수 없다는 걸 알면 남자는 화가 나고, 침묵하게 됩니다. 아이는 같이 놀아 달라 할 것이고, 아내는 못을 박아 달라거나 가구 방향을 틀어 달라고 할 겁니다. 딱히 할 일이 없어도, 아내는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고, 자기 하루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아내는 요구가 너무 많다 생각되면, 아내의 수많은 질문에 침묵하고 맙니다. '오늘 어땠어요?' 그걸로 대화를 종지기 바라면서, '좋았어' 하고 다시 침묵합니다. 대개 아내는 소통을 원하지만, 남편들은 불통을 택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원래 남자도 소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소통을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게 지어진 존재가 남자 이전에 사람입니다. 성경은 침묵의 위험, 불통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전통적인 해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래리 크랩이 쓴 '아담의 침묵'이란 책 7 장을 많이 참고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 3:1-6 함께 읽겠습니다.

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기도)

전통적으로 인류가 타락한 원인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 온통 하와에게 돌려 왔습니다. 하와가 뱀과 대화할 동안, 아담은 딴 데 갔었다고 본문을 해석할 때 그렇습니다. 하와가 먼저 죄 지은 다음, 아담을 찾아와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된 걸로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하와 탓이라고, 여성들에게 화살을 돌려 왔습니다. 하와가 먼저 죄 지었고, 아담은 하와 혼자 죄 가운데 살게 할 수 없어, 같이 따먹은 걸로, 아담의 행동을 낭만적으로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와가 뱀과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아담이 곁에 있었다면, 전혀 그림은 달라집니다. 하와 곁에 서서 뱀을 통해 펴고있는 사탄의 논리에, 아담이 귀 기울이면서 가만히 있었다면, 그런 전통적인 해석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불순종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뱀이 자기 아내와 말하는 걸 막지 않은데서부터 시작되고, 결국 하와보다는 아담의 책임이 더 크게 됩니다.

만약 아담이 거기 있으면서 침묵했다면, 수천년간 남자들의 문제를 하와를 탓하면서 여자들에게 떼 넘긴 겁니다. 성경을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로 만들고 만 겁니다. 하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할 동안 아담이 하와 곁에 있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면 아담의 침묵이 문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아담이, 하와와 충분한 소통에 실패한 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쩔 수 없이 하와가 건네준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속마음을 숨긴 채 의뭉스럽게 함께 먹은 겁니다.

아담이 하와가 유혹받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셋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과 현실에서 계속 찾아볼 수 있는 남자들의 침묵하는 패턴, 그리고 창 1-3 장의 문맥 등이 그 근거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창 3:6 입니다. 아담이 현장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6 b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임하'입니다.

'함께'란 뜻의 전치사 '임'과 여성형 어미 '하'를 합친 겁니다. '함께'란 전치사 '임'은 물론 밀접한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부부인 아담에게도 주었던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뜻합니다. 사사기에 남편 마노아가 기도했는데, 아내가 응답받고 삼손을 낳습니다. 사 13:9 끝 '임하'가 나오는데, 물리적으로 아내가 응답받는 자리에 마노아가 없단 뜻입니다. 뱀이 나타나 하와에게 말할 동안, 남편 아담은 임하 즉 물리적으로 그 자리에 아내와 함께 있었다고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 3 장은 한 에피소드를 시간에 따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시간과, 아담이 따먹은 시간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는 암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동안 아담이 멀리 있었다는 암시도, 하와가 혼자 따먹고 나서 나중에 아담을 찾아 나섰다는 암시도 6 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절 안에 시간 간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반역 행위를 너무도 쉽게 공모하는 고통스런 희극이 그려집니다. 하와가 따먹는 걸 아담이 보고도 침묵하자, 자기와 함께 있던 남편에게도 주고, 아담도 낼름 받아 먹은 겁니다.

창세기에는 침묵과 불통을 택한 남자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소통하는 대신 침묵하고, 기억 대신 망각을 택할 때마다, 하나같이 혼돈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사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아브람의 행동에서 되풀이된, 아담의 패턴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람도 아담처럼 아내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입니다. 약속을 아브람이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했어야 합니다. 그 대신 사래가 틀렸는데도, 침묵하고 아내 말을 듣습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선악과를 준 것처럼, 사래도 남편에게 여종을 줍니다. 그대로 취한 아브람도 침묵했고 수동적이었습니다. 그 침묵과 불통은 삼천년이 지난 지금도 되풀이되는 패턴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 맥락은 창 1-3 장을 보면 됩니다. 1 장에서 하나님은 혼돈을 걷어 내십니다. 말씀으로 소통해서, 질서와 아름다움과 관계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나 창 3 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인 아담은, 혼돈을 만들어 냅니다. 침묵으로 소통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사용해, 관계를 세우셨습니다. 아담은 침묵을 사용해, 관계를 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 후 쉬셨습니다. 아담은 침묵의 결과, 더 고되게

일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낙원을 망쳐 났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지닌 아담, 먼저 계시를 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불통, 하나님 명령을 망각하는 것을 택했던 겁니다.

아담은 뱀에게만 침묵한 게 아닙니다. 하와에게도 침묵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곡해할 때, 하와가 흔들리는 걸 창세기 저자는 잘 포착하고 있습니다. 1 절 부정 의문문으로 뱀이, '하나님은 왜 그러시지' 하는 식으로 하나님 뜻을 곡해합니다. 그 문장에는 강조할 때 쓰이는 '참으로'가 더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지 참으로' 누구 험담할 때 쓰는 관용어구 아닙니까? 그러자 3 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 답변은 아담에게서 전해 들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많이 변질 되어 있습니다. 가감된 겁니다. 없는 말이 더해 졌고, 확실한 뜻은 약화됐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는 없는 데, 더해진 부분입니다. 흔들리는 여심을 고스란히 드러낸 표현입니다. 2:17 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뜻이 외곡되고 약하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상기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시야를 넓혀주는 커녕,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뱀과 스트러글하는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수동적으로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말하고, 여자는 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말하고 소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단 말 뜻입니다. 아담은 소통에 실패한 겁니다. 아담은 뱀과 아내에게 침묵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몸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침묵함으로,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아담의 침묵은 하와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거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침묵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17 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과를 먹은 것을 벌하심과 동시에, 침묵하고 아내 말을 들은 걸 벌하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아담은 먼저 침묵했고, 그리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먹은 데서 시작하지 않고, 침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랑해야 할 아내에게서부터 물러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결국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침묵한 남자였습니다. 아담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처럼, 저도 자주 침묵합니다. 아내가 제 속 마음을 알아차리고, 소통을 시도할 때면 몸이 굳어 집니다. 그러다 아내가 울기라도 하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처할 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아내가 제 잘못을 지적하기라도 하면, 긴급 자기방어 기제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일곱 배로 아내 흠을 들춰내면서, 제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뱀이 그런 것처럼, 관계를 파괴하는 데 말을 더 합니다. 그 이면에는, 상처받고 치욕스러워 하는 미숙한 제가 숨어 있습니다. 내 깊은 속을 다 털어 놓았다가, 아내에게 들통나고 결국 거부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치명적입니다. 아담 보십시오. 아담의 침묵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 왔습니다. 소통에 실패한 결과는 파괴와 죽음입니다. 남편의 침묵은 아내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바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부의 몸짓입니다. 혼돈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짓입니다. 12 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 혼자 죄 가운데 살게 할 수 없어, 같이 따먹은 아담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말은 관계로 통하는 문이고, 침묵은 빗장입니다. 성경은 말이 우리를 침묵에서 이끌어내, 하나님과 이어준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말 속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에

생명을 불러들이는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뱀의 말처럼 죽음과 파멸을 불러들이는 능력 또한 숨어 있습니다. 물론 침묵도 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의 침묵은, 파멸을 부르고 맵니다. 지난 주간 청년들과 낚시를 가서 트라우트를 잡아 왔습니다. 집에서 제가 매운탕을 끓였는데,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했더니, 제가 맛을 봐도 솔직히 맛이 없었습니다.

솔직한 작은 아들은 논평을 한마디 했습니다. “덜 맵고, 간이 맞지 않아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아내에게도 ‘엄마도 한 마디’하라고 동의를 구했지만, 아내는 끝내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아내 입맛이 저보다 열 배는 발달했는데, ‘먹을만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내가 제 설교를 논평한 지가 꽤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긴급 방어 기제를 발동하다 보니까, 아내까지 침묵시켰다는 자각이 왔습니다.

소통에 실패하면 독재자가 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급격히 타락하고 파괴적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과 스포츠, 취미 속으로 사라집니다. 관계보다 덜 중요한 것들로 숨어 버립니다. 침묵이나 사람짐은 두려움에 대한 최상의 방어기제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남자를 가장으로 두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고 변화를 낳고 유산을 남기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침묵과 사라짐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부인하기 쉽습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무신론자로 사는 겁니다. 혼돈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믿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창조와 파괴의 갈림길에 섭니다. 침묵은 파괴합니다. 말은 창조합니다. 저도 침묵형의 남자지만 이제는 말하는 남자, 대화하고 소통하는 남자, 거기 없는 남자가 아니라 거기 있는 남자,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남자 이전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말로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